

사상의학의 변상법으로 의난병을 치료한 병안2례

황학송*, 김승렬*

임상중 이상한 어려운 병에 대하여 중의학에서는 담(痰)으로 논증하였는바 필자는 다년간 상을 가려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았는바 2가지 의난병례에 대하여 보고하려 합니다.

1. 월경전 고�혈압증

환자 김희선, 녀, 40세, 연길시 사람. 92년 5월 13일 진찰. 그의 말에 따르면 해산후 8개월간 이미 세번 월경이 왔었는데 매번 월경이 오기전에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몹시 아프고 월경이 끝나면 혈압이 정상으로 됩니다. 연길시에서 수많은 의사의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난치병"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치료하려 오기전 바로 월경기여서 머리가 몹시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불편하며 혈압이 180/120수은공주cm인바 확실히 월경주기와 혈압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습니다. 사상변상법으로 보면 태음인 부류에 속하여 두통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갈근50.0, 고본20.0, 승마10.0, 길경10.0, 내복자20.0, 오미자10.0, 백지10.0, 부평10.0, 공영10.0, 감국화10.0, 조구등50.0, 택란10.0, 생룡골30.0, 매일한첩,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구복시켰습니다.

5월 18일 복진, 두통이 경감되고 혈압이 170/115수은공주cm로 내려왔는바 원처방으로 또

다섯첩을 구복시켰습니다.

5월 25일, 세번째로 진찰하려 왔을때 두통이 이미 없어지고 월경이 지나갔으며 혈압은 150/110수은공주cm로 내려왔는바 7첩을 다 지어드리고 다음달 월경이 오기 10일전에 진찰하려 오게끔 부탁하였습니다.

6월 3일, 바로 월경이 오기전 병원에 와서 진찰한 결과 혈압이 150/90수은공주cm의 온정상태에서 계속 전번 처방으로 10첩 더 쓰라고 부탁드렸습니다.

7월 18일, 환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월경은 이미 지나고 경도가 오기전인데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다 큰데도 불편한 감이 없으며 혈압은 130/90수은공주cm로 내려왔습니다. 하여 원처방으로 7첩을 더 지어드리고 월경이 오기 10일전에 또 검사하게끔 부탁하였습니다.

8월 5일, 바로 월경이 오기 10일전 와서 다시 검사하여 본 결과 혈압이 130/90으로 계속 병세가 온정되었습니다. 또 7첩을 드리고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고 만약 반복이 있으면 다시 와서 진찰하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복발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사상의학에서 보면 태음인은 간대폐소로 고�혈압병에 쉽게 걸리며 두통증과 관상동맥경화성심

* 길림성 도문시 중의원

장병이 오기 쉽습니다. 간이 크기 때문에 간장기능 항진과 관계가 많은바 바로 통리법(通利法)으로 폐를 보하고 간을 사(瀉)하게 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과연 신비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2. 수족발열증

림상에서 수족 발열증 환자를 수차례 보았는데 모두 사상변상법으로 치료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는데 그 중 한가지 병례만 소개하려 합니다.

환자 김XX, 남, 50세, 연변석유련공장간부, 92년 5월 20일, 처음 진찰, 그의 말에 의하면 손발에 열이 난지가 수개월되며 밤에 더욱더 잠들지 못하며 찬물에 손발을 담구고 있으면 잠시 시원하다가도 소용이 없어 나중엔 손과 발바닥을 콘크리트 땅바닥에 붙이고 있어야만 진정되어 좀 잘수가 있었습니다. 검사한 결과 특수한 양성(陽性)소견이 없는바 이 환자가 바로 태음인이어서 열다한소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그 처방으로는 갈근50.0, 고본20.0, 황금20.0, 승마10.0, 길경10.0, 오미자10.0, 백지

10.0, 백모근50.0, 이상 약으로 5첩을 주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구복시켰습니다.

5월 26일, 복진결과, 손발에 열이 나는 감이 감소되고 잠잘 수 있었는데 또 5첩을 주어 구복시켰습니다.

6월 1일, 세번째 진찰결과 수족에 열이 나는 증상이 기본상 소실 되었으며 치료효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청심련자탕 5첩을 더 지어 드렸습니다.

[설명]림상에서 수족 발열증이 적지 않게 있는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병은 식물신경물란증과 비슷하여 중의학에서는 음허발열(陰虛)로 인정하는바 그러나 일단 보음법으로 치료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사상의학에선 이 병을 태음인의 간기가 왕성하여 초래된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치료상에서 간을 사(瀉)하고 폐를 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바 열다한소탕으로 아주 원만한 효과를 보았으며 2년래 지금까지 복발하지 않았습니다.